

광주·전남 시너지 ‘서남권 산업투자청’ 설립 제안 주목

정준호 “‘제로섬’ 넘어 ‘윈윈’ 전환을”
市·道 대주주...권역형 산업은행 모델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 많을 듯
재원·운영·민간 자본 유치 난관 예상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가AI컴퓨팅센터 전남 입지 공모를 계기로 불거진 광주·전남 간 경쟁 구도를 ‘윈윈’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남권 산업투자청(가칭)’ 설립을 공식 제안,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준호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광주·전남을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하는

서남권 광역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 투자 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과 자산운용사, 투자자를 직접 모으기 위한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인 ‘5곡 3특’ 전략과 광주·전남의 광역 연합 논의를 언급하며 “형식적인 행정적 통합보다는 미래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청 설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권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광역도시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이 구상하는 ‘서남권 산업투자청’은 광주·전남도가 대주주로 출자하고, 산업은행과 지역은행, 국내외 투자기관 등이 추가 출자하는 방식이다.

투자청은 확보된 자본을 바탕으로 서남권의

▲AI·컴퓨팅·데이터센터 확대 ▲고성능 반도체 제작 ▲AI 모빌리티 상용화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R&D 투자 및 전문 인력 양성 ▲전략 기업 유치 등에 대대적인 투자를 집행하는 ‘권역형 산업은행’ 모델을 목표로 한다.

그는 광주의 강점(전남대·GIST·국가AI데이터센터·도심 실증)과 전남의 강점(재생에너지·냉각수·넓은 토지)을 투자청이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최근 호남에 대한 국내외 투자기관과 AI 기업의 투자 사례가 늘고 있다”며 “투자청이 서남권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남권 산업투자청’이 광주·전남 상생을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현실

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특히 ▲초기 재원 확보 방안 ▲광주·전남 간 확고한 협력 ▲민간 투자자의 실질적 참여 유도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가장 큰 난관은 재원 확보다. 광주·전남도가 ‘대주주’로 참여해야 하지만 두 지자체 모두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아 수천억원의 초기 출자금 마련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대주주’로서의 지분율을 어떻게 정할지도 민감한 문제다. 출자 비율에 따라 향후 투자 방향과 의사 결정 권한이 달라질 수 있어 자칫 설립 초기부터 양 지자체 간 ‘제로섬 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

투자청이 설립되더라도 운영 과정 역시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크다. 투자청이 유치한 자본과 사업을 광주와 전남 중 어느 지역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I컴퓨팅센터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대로 지역의 이익이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사안에서 ‘윈윈’이라는 총론은 쉽게 동의되지만 ‘각론’에서는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서남권 산업투자청’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출자금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민간 자본을 유치해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다.

민간 투자자들은 수익성을 최우선 고려한다. 만약 투자청이 정치적 논리나 지역 안배에 따라 비수익성 사업에 투자를 강행한다면 ‘관제 펀드’로 전락해 민간 자본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진수 기자



가을 정취 만끽...살벌해진 날씨 속에 맞은 휴일인 26일 화순군 도곡면 고인돌유적지 일원에서 열린 '2025 화순 고인돌가을꽃축제'를 찾은 이들이객들이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최저기온 ‘뚝’...이번 주 더 추워요

29일 곡성·보성 등 2도까지 떨어져
일교차 10도 안팎...건강관리 주의

이번 주 광주·전남은 대부분 지역의 최저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지난주보다 추웠다. 2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최저·최

고기온은 7-11도, 13-16도로 예보됐다.

28일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조금 더 낮겠으나 최고기온은 오르겠다. 예상 분포는 각각 4-8도, 15-18도다. 29일 곡성·보성의 최저기온이 2도까지 떨어져 가장 춥겠다. 나머지 지역의 최저기온 분포는 3-9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전역 최고기온은 전날과 비슷한 16

-19도로 전망됐다. 27일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으며, 소량의 눈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27일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2-5도 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며 “28일부터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재영 기자

‘2028 전국체전’ 광주서 열린다

2007년 이후 21년만에 개최 확정
‘AI·문화·참여·포용’ 등 4대 목표
저비용·고효율 대회 ‘종합 축제’로

‘2028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광주시가 최종 확정됐다. 광주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것은 2007년 이후 21년 만이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대한체육회는 이사회를 열어 2028년 제10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광주시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체전, 미래로 도약하는 체전’을 기조로 체육을 넘어 문화·경제·도시 활력까지 아우르는 종합축제를 준비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전국체전을 단순한 체육대회가 아닌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도시축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스마트 체전, 문화·예술 융합 체전, 시민 참여형 체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전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광주시는 전국체전으로 약 15만명의 방문객이 3년 간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직접

경제효과는 1천111억원, 생산유발효과 2천172억원, 취업유발효과 2천614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시는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시설 개보수와 운영비에 약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광주시는 기존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비용·고효율 대회를 지향하며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 전국체전 개최 예정지인 제주(2026년), 경기(2027년), 충남(2029년) 등과 협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갑수 광주체육회장은 “엘리트 체육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 140만 시민 건강 증진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체육 진흥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장애인 접근성 개선, 지역 상권과 연계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정말 잘 치른 체전’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Today

‘착공식 30분’ 위해 월세 1천650만원을 7면

광주은행, 퇴직연금 수익률 은행권 1위 12면

성영탁 “내년엔더 믿음 주는 선수로” 16면



한국전력의 최우선 가치는 작업자의 안전입니다

생명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치는 없기에
한국전력은 혁신적인 안전경영을 통해
작업자의 소중한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한국전력